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이XX
파견국가	폴란드	파견도시	포즈난 (Poznan)
파견대학	WSB University	파견기간	2019.09.08 – 2020.06.18
귀국여부	귀국 완료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제가 파견간 학교는 WSB대학교로 폴란드의 대학도시라고 불리는 Poznan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던 곳은 총 세개의 건물로 구성 되어있고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폴란드 전국 곳곳에 분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은 깔끔하였으며 한국 강의실과 비교하여도 크게 부족한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직원분들도 교환학생들을 잘 챙겨 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 친구들 그리고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폴란드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모두 열심히 본인의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이 여럿 있다 보니 비교적 쉽게 어울릴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열의를 쏟아 학업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Pass or Fail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노력하여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학업에 임했습니다.

2018-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수업마다 교수님들의 성향과 수업방식이 달랐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열의가 넘치셨습니다. 먼저 제가 폴란드에서 처음 들은 수업 중 하나인 Business communication 수업은 말그대로 사업에 있어서 다른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이었고 여러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의사소통에 관하여 수업을 하게 되니 색다르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친구들끼리 대화를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셨고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Economics 수업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 경제학 수업이 학초로 개설되어 있지만 듣지 않아서 교환학생을 가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시험과 중간중간 보는 미니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조금 느꼈습니다. 세번째로는 Fundamentals of Business Management인데, 이 과목은 교수님께서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셨고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며 수업을 진행하셔서 편안하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매우 추천합니다. 과제는 수업자료 읽어 오기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수업인 Human Capital Management는 교수님께서 제가 속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혼자 한국인이었기에 질문도 많이 해 주셔서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플러스 점수를 받기 위하여 가끔 PPT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수업에는 교재가 필요 없지만 스스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업 자료들을 인쇄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2019-1학기 수업	해당학기 수업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International Management 수업은 강의를 녹화하여 학생들이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학기에 들은 수업 중 가장 재미있고 쉬운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을 격려해주시고 참여를 유도하셨습니다. Marketing 수업은 가장 어려운 수업 중 하나였는데, 시험문제도 어려웠고 수업 중간중간 퀴즈를 내주셨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수업은 수업 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업 자료를 읽고 수업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Project Management 수업은 가장 체계적인 수업이었는데 조별과제와 조별토론이 주를 이루었고 마지막에 제출하는 최종 과제 또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제출하는 과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별

	과제와 크게 다른 느낌은 없고 함께 협력하여 과제를 끝내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Psychology in Management 수업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조별 토론을 시켜 수업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통해 숙지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학기 마지막에는 조별 발표와 개인 시험을 진행하여 학기를 마쳤습니다. 해당학기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과제와 토론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답답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오리엔테이션은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프로그램, 행사, 학점 인정 그리고 수업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마다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궁금증을 해결하곤 했는데, 직원분들 (Nadia Estera, Sameen)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교환학생 생활동안 현지 취업이 궁금하여 여쭙보니 취업관련 부서가 마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폴란드어 수업이 있기도 했습니다. ESN Program들이 다양했는데, 교환학생들이 모여 함께 클라이밍, 바비큐 파티, 시티투어 등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9월초에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가을과 같은 날씨였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일교차도 있어서 감기에 유의해야 했습니다.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위쪽에 위치한 곳이라 추위를 걱정했는데 현지 친구들 말에 의하면 지난 겨울은 비교적 춥지 않았다고 합니다. 봄은 한국의 봄보다 더 건조하여 가끔 손이 틀 때도 있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것은 한국과 비슷하였지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맑았던 하늘이 금세 어두워지고 어두웠던 하늘이 금세 맑아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6월 중순에 귀국을 하여 제대로 된 여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한국보다 햇빛은 강렬했으나

	건조하여 그늘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고 땀이 식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유럽이라 안전이나 치안에 있어서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남자라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씩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주로 연령대가 매우 높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이거나 십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터치하며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조롱하거나 비웃는 식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지 뉴스를 봐도 폴란드어로 나와서 이해하기 힘들어 국가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1인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방과 욕실은 공용이었으며 6-7명 정도가 함께 살았습니다.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하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교환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함께 사는 친구들과는 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건물은 위치는 트램역과 가까워서 편리하긴 했지만 건의를 해도 직원들이 불친절 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밀어 체계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 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제가 느끼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 숙박업체에선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명 : sofa)

식사	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물가가 저렴하여 외식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이었지만 직접 조리를 해서 먹으면 지출을 줄일 수 있기에 일주일에 하루정도만 외식을 하였습니다. 보통 밖에서 외식을 하면 6000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었기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한인마트가 있어 간장, 참기름 등등 양념들을 사서 조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주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한국보다 식재료 가격이 많이 저렴하여 고기, 과일, 야채를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집에서 학교까지 2km정도 되었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주로 걸어서 통학을 했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트램을 이용하여 통학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트램과 버스가 있는데 정기권을 사면 모두 이용 가능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Uber나 택시는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간의 이동은 기차나 버스로 하였고 폴란드가 EU국가중 하나라 다른 나라로 가는데도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만원	갈때는 마일리지 (무료), 올때는 특별기 (120만원)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습니다.	X
보험료	8만원	현지에서 등록한 보험 없이 출발 전 해외여행자 보험만 등록했습니다.
숙소	약25만원 (매달) * 10개월 = 약250만원 (환율차이)	

식비	총 200만원	매달 대략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정기 교통권이 저렴하게 학생들 상대로 할인이 되어 지출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값	없음	x
기타1	동유럽 10일 여행비용 50만원	숙박 40만원 교통 10만원
기타2	서유럽 20일 여행비용 400만원	숙박 100만원 교통 100만원 쇼핑 50만원 식비 50만원 기타 100만원
합계	1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본인이 교환학생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생활 하고 싶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 관련하여 기본 정보를 습득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인이 생활하는 인근 지역을 구글맵을 통해 파악 하거나 교통수단은 무엇이 있는지 가기 전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서 간다면 수월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해당 국가 언어의 기본적인 표현들을 숙지하고 가면 친구들을 만들기 조금은 쉬울 것입니다.

한인마트가 있는 지의 여부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최소 한학기 이상을 거주할 곳이니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꼭 체크해서 한국과 비교하여 옷을 챙겨야 하고 유럽은 대부분 큰 비는 오지 않으나 자주 오는 경우가 있어 방수가 되는 옷이 있으면 좋을 것 입니다.

여행을 갈 경우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국 및 교통수단 이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EU안에 소속된 국가여도 각 나라마다 코로나 관련 정책과 규범들이 다르기에 확인하고 가야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한국에 있는 가족과 학교측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혼자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은 특히 치안이나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비상연락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정말 좋았습니다. 일년을 휴학하고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일년을 휴학하고 간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처음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곳에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처음 본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가 부러웠고 배려와 존중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이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편견없이 사람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물론 길을 가다 인종차별도 당하고 얼마전 터진 코로나로 인해 무시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곳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기억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아련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 가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바디랭귀지를 섞어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 마저도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서슴없이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 중 느낀점은 한국에 대한 의식이 나쁘지 않다는 점과 저 혼자 한국인이었기에 저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생각에 말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해외에 나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생활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럽에 살면 좀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도 해외취업으로 방향을 잡고 할 예정입니다. 어학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예정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 더 알아 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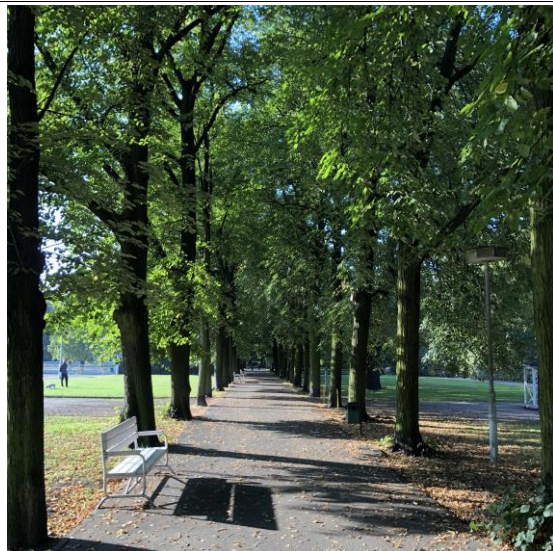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기초에 있던 교환학생 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Beerpong을 하고있던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양쪽에 있는 포르투갈 친구들이 포르투갈 이름을 Alfredo로 지어주었습니다.



이번겨울 프랑스 몽생미셸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수도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집 앞에 있던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서 조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의 Old Town입니다. 식당, 펍, 바들이 위치해 있으며 주말에 이곳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겨울 영국에 가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의 경기를 보러 갔을 때입니다. 이 경기는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은 경기였으며 이날 손흥민 선수는 1골을 기록하고 팀은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르투갈 친구들과 작년 가을에 제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세시간정도 떨어진 도시로 여행을 함께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